

I

경영환경

- 2020년 4/4분기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 후 각국의 부양책으로 하락과 상승을 크게 반복하며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임
 - 2020년 4/4분기 세계 무역과 산업생산은 2/4분기 큰 폭의 감소 후 2분기 연속 반등하여 2019년도 4/4분기 수준을 회복함
- 2020년 4/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2%로 3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입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음
 - 한국은행과 KDI는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0%, 3.8%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함
 -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국내 금융시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회복 성장세 지원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단기 채권 발행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경기회복을 보이며, 장단기 금리격차가 확대됨
 -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코로나19 단계 조정에 따른 점진적인 경제활동의 정상화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함
- 2020년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국내외 주식 거래 모두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반면, 투자펀드 거래는 전년도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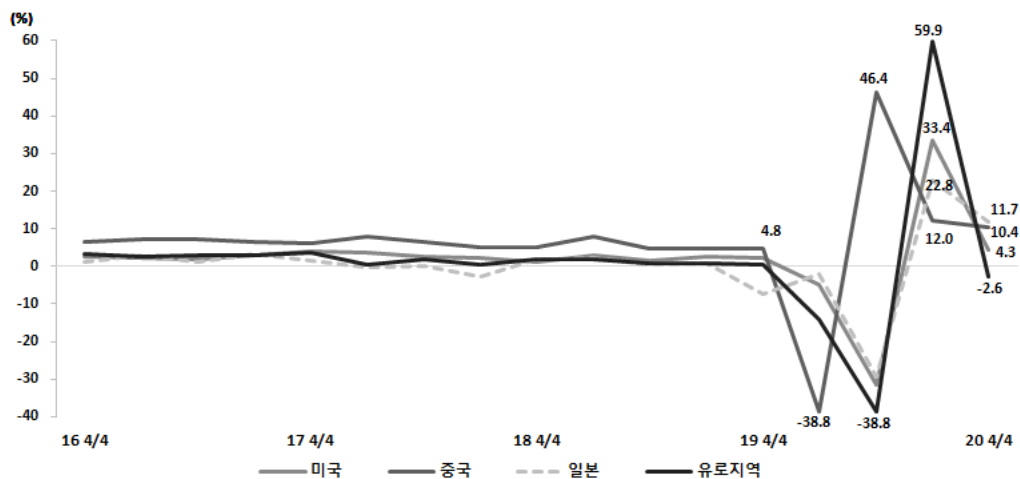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0년 4/4분기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1/4분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 후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하락과 상승을 크게 반복하며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2020년 4/4분기 미국, 일본, 유로지역의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각각 4.3%, 11.7%, -2.6%로 전분기 대비 각각 29.1%p, 11.1%p, 62.5%p 하락함
- 미국, 일본, 유로지역 모두 전분기의 급격한 회복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4/4분기 큰 폭의 하락을 보임
- 중국의 4/4분기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0.4%로 전분기보다 1.6%p 하락하였으나, 미국, 일본, 유로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음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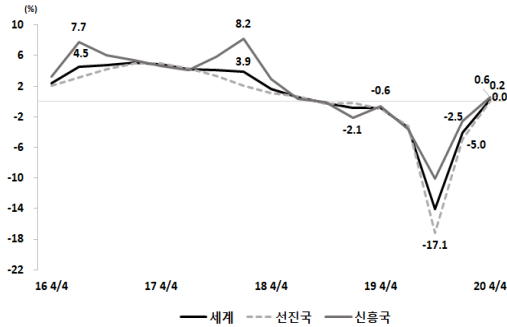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1. 3); 중국 국가통계국(2021. 1); 일본 내각부(2021. 3); Eurostat(2021. 4)

○ 2020년 4/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0.2%로 직전 2분기의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벗어나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하였으나, 산업생산 증가율은 -0.2%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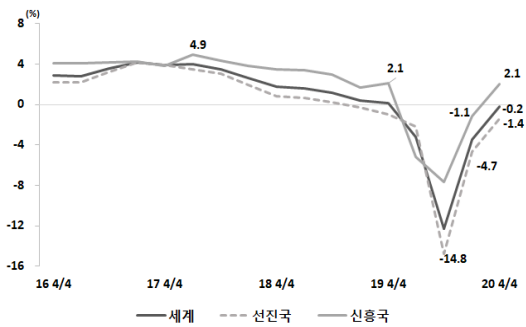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선진국의 무역규모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이고 신흥국의 무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2020년 4/4분기 선진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데 반해 신흥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함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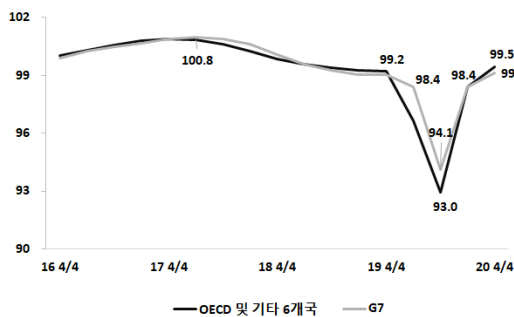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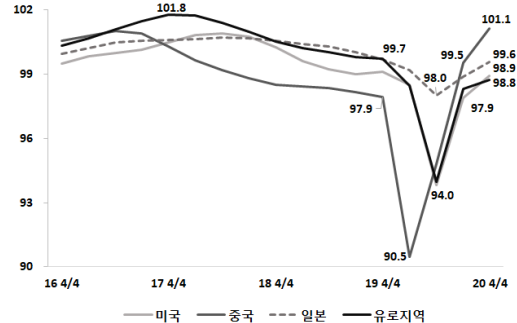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¹⁾는 99.5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4/4분기 수준으로 회복함

- 2020년 4/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9.1로 전분기보다 0.7p 상승하였고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은 전분기보다 각각 1.0p, 0.5p, 0.7p 상승한 98.9, 98.8, 99.6을 기록함
- 2020년 4/4분기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101.1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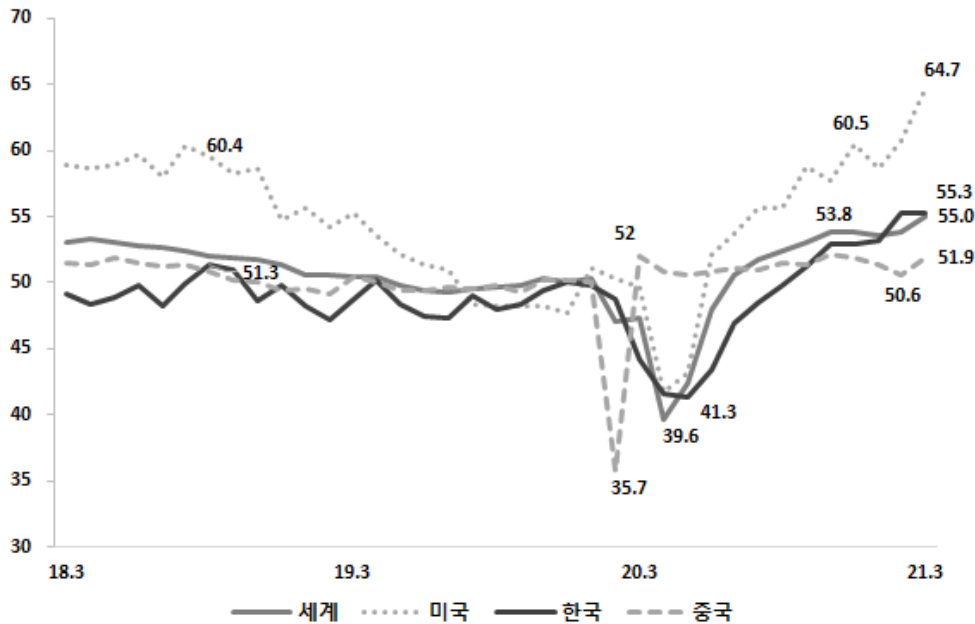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1)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 2021년 3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²⁾는 55.0으로 최근 5년 이내 최고치를 기록함
 - 2021년 3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64.7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한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55.3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함
 - 2021년 3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1.9를 기록함

〈그림 6〉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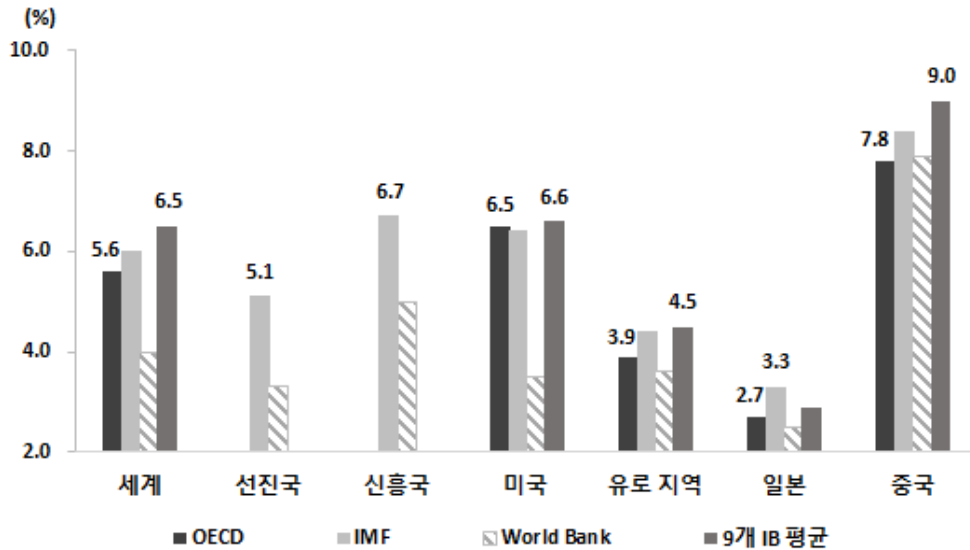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과 백신 접종 확대로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 OECD는 2020년 하반기 세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각국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5.6%로 상향 조정함³⁾

2)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3) OECD(2021. 3),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k 2021*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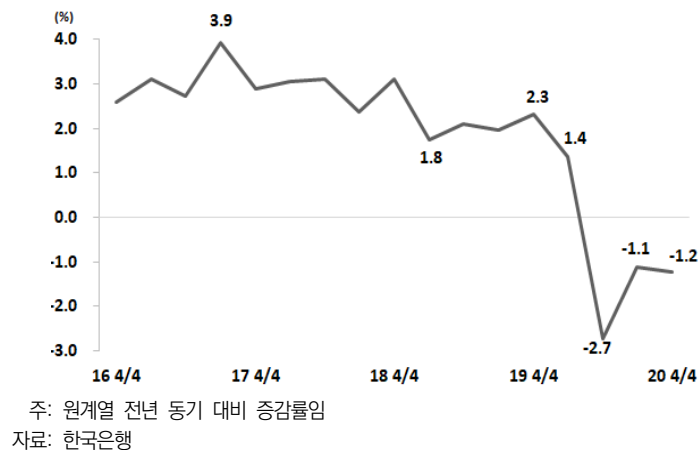


주: 9개 IB: Barclays, BoA-ML,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
 자료: IMF(2021. 4); OECD(2021. 3); World Bank(2021. 1); 9개 IB 평균(2021. 4)

나. 국내경제

- 2020년 4/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2%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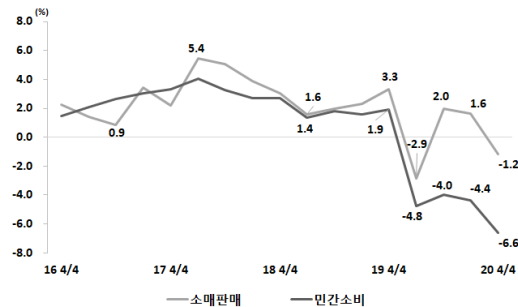
〈그림 8〉 국내 경제성장률



○ 2020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하면서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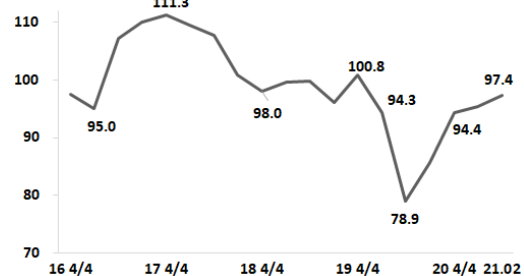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하여 2020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지속된 4%대의 감소세가 더욱 확대됨
- 2020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여 2/4분기와 3/4분기의 회복 후 다시 감소세를 나타냄
- 2020년 4/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94.4로 전분기 대비 8.7p 상승하였으며 2021년 2월 97.4까지 상승을 지속함

〈그림 9〉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4/4분기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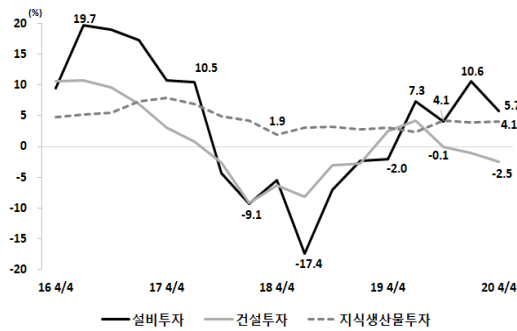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였고, 지식생산물투자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함
- 반면 2020년 4/4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면서 2/4분기 이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감
- 2020년 4/4분기 기계수주는 12월 공공운수업 등 공공 부문이 감소하여⁵⁾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하였고, 건설수주는 11월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하여⁶⁾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함

4) 통계청 보도자료(2020. 11),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12),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1), “2020년 12월 산업활동동향”

5) 통계청 보도자료(2021. 1), “2020년 12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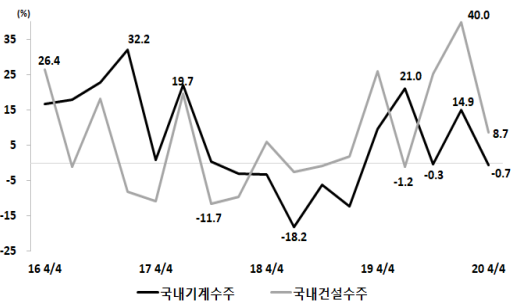
6) 통계청 보도자료(2020. 12),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1〉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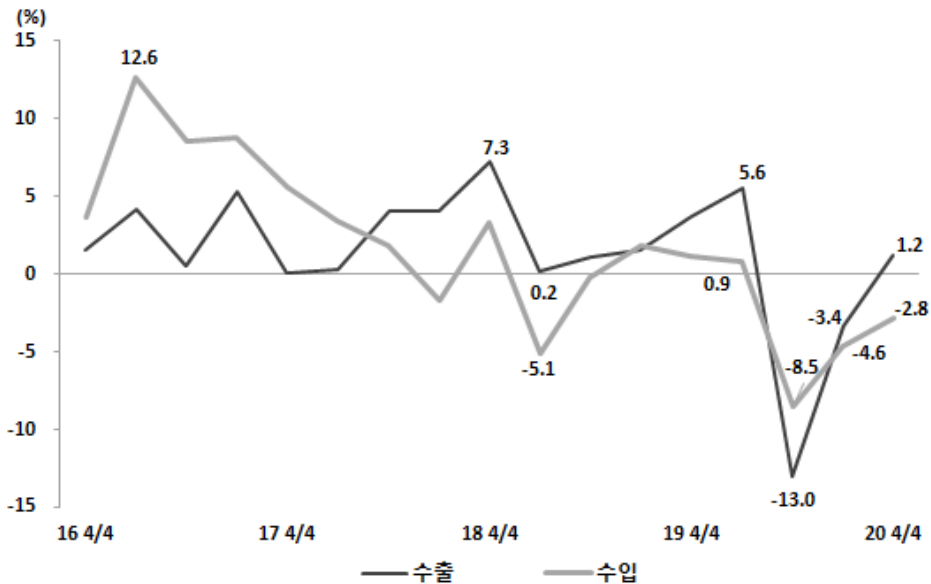
〈그림 12〉 기계수주, ¹⁾ 건설수주 ²⁾ 증가율



주: 1) 선박 제외함
2) 경상임
자료: 통계청

- 2020년 4/4분기 수출 증가율은 1.2%로 직전 2분기의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 하였으나, 수입 증가율은 -2.8%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함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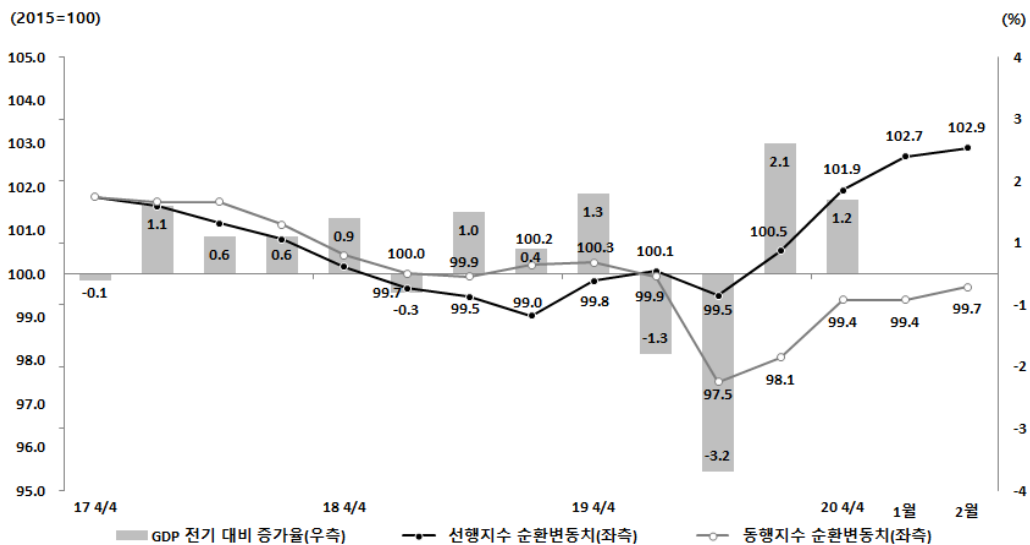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4/4분기 경기 선행지수⁷⁾ 순환변동치, 경기 동행지수⁸⁾ 순환변동치는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며 2021년 2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함

- 2020년 4/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10~12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경제심리지수, 코스피 등이 상승하여⁹⁾ 전분기보다 1.4p 상승한 101.9를 기록함
- 2020년 4/4분기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10~11월 내수출하지수가 증가하고 11~12월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¹⁰⁾ 전분기보다 1.3p 상승한 99.4를 기록함
- 2021년 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각각 102.9와 99.7을 기록함

〈그림 14〉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21년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7)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8)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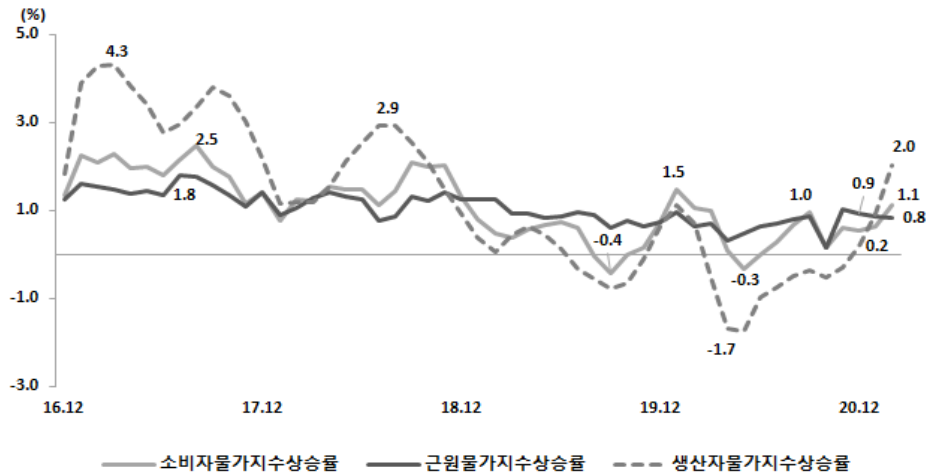
9) 통계청 보도자료(2020. 11),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12),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1), “2020년 12월 산업활동동향”

10) 통계청 보도자료(2020. 11),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12),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1), “2020년 12월 산업활동동향”

○ 2021년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로, 2020년 5월 -0.3%를 기록한 후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21년 1월과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확대,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함¹¹⁾

〈그림 15〉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양호한 투자 흐름의 지속 등으로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각각 3.0%,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²⁾은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3.3%(Citi)에서 최고 4.8%(UBS)로, 평균 3.8%로 전망함

11) 기획재정부(2021. 2; 2021. 3), 「최근경제동향」

12) 9개 IB(Barclays, BoA-ML, Citi,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Credit Suisse, HSBC, UBS), 2021년 3월 말 기준임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F) ¹⁾		2022(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2.0	-1.0	3.0	3.8	2.5	3.0
민간소비	1.7	-5.0	2.0	2.5	2.8	4.0
설비투자	-7.5	6.8	5.3	8.5	3.0	2.8
건설투자	-2.5	-0.1	0.8	1.4	2.1	3.5
지식생산물투자	3.0	3.7	4.1	4.1	3.5	3.4
상품수출	0.5	-0.5	7.1	8.6	2.3	2.8
상품수입	-0.8	0.0	6.4	7.9	3.3	3.2
실업률	3.8	4.0	4.0	4.1	3.8	3.9
소비자물가	0.4	0.5	1.3	1.7	1.4	1.1
경상수지	600	753	640	829	620	685
상품수지	769	819	740	867	730	836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69	-67	-100	-39	-110	-151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1. 2),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1. 5),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2. 금융

가. 금리

- 금융위원회는 경기 회복 성장세를 지원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에서 동결하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함¹³⁾
 -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1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
 - 국내금융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요국과 함께 주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추후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2020년 12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자산 매입, 가계·기업 대출 지원 정책 등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¹⁴⁾
 - 미 연준(Fed)은 1월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동결하고 자산매입에 관한 포워드가이던스를 강화하였으며,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함
 - 자산매입기간을 “향후 몇 개월간”에서 “완전고용 및 물가안정(2%) 목표 방향으로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로 변경하고 자산매입 규모도 “매월 최소한 국채 800억 달러 및 정부기관 MBS 400억 달러”로 확대함
 - 유럽 중앙은행(ECB)은 1월 기준금리를 0.00%에서 동결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근접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함
 - 영국 중앙은행(BOE)은 2월 기준금리를 0.10%로 동결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및 이동제한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 기조를 유지하기로 함
 - 일본 중앙은행(BOJ)은 1월 단기기준금리를 -0.1%, 10년물 국고채 금리 목표를 0%로 동결하고 장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함
- 장단기 금리는 정부의 단기채권 발행 비중 확대에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며 격차가 확대됨
 - 정부의 2021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2년물 국고채 금리가 신설됨에 따라 2~3년물 $30 \pm 5\%$, 5~10년물 $40 \pm 5\%$, 20년 이상물 $30 \pm 5\%$ 로 단기채권 발행 비중이 확대됨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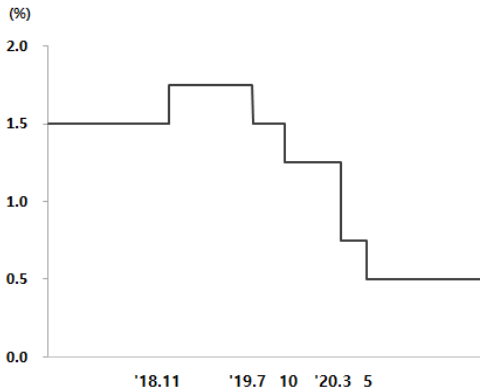
13) 한국은행(2021. 4. 15), 『통화정책방향』

14) 한국은행(2021. 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15)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 12. 21), 「금리: 외국인 주도의 장세 지속 불가피」,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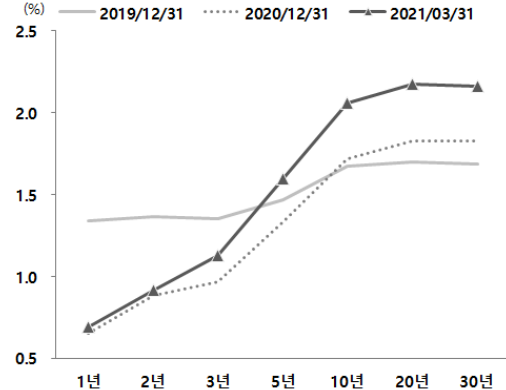
-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대 기대감으로 주요국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지표 개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국채 발행 확대 예상 등으로 금리가 상승함
 -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총 16조 원 규모로 2020년 3월부터 은행 대출 취급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¹⁶⁾

〈그림 16〉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17〉 국고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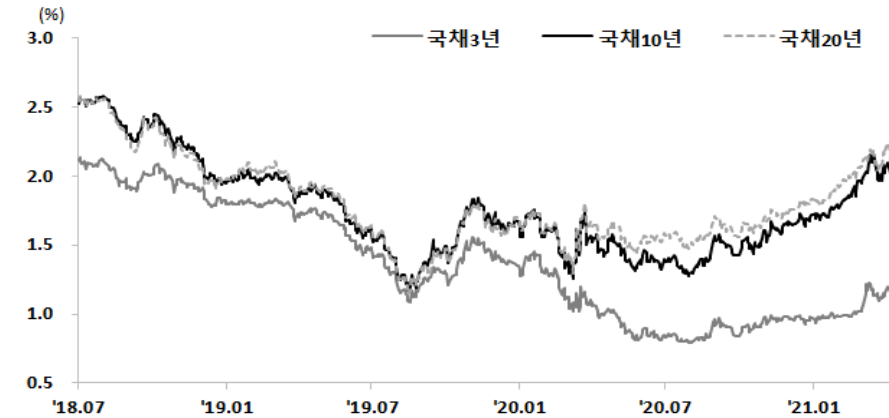
○ 코로나19 단계 조정에 따른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고용회복 한계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 제한적 경기 회복으로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함

- 1월,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기 회복 전망 속에 글로벌 금리는 상승하고 있으나, 채권 선현물 차익 거래 확대,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¹⁷⁾ 국고채 금리 상승폭이 제한됨
- 2월 국고채 금리는 대외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규모 추경 편성 가능성, 3~4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따른 국채 발행 급증 우려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선을 돌파하였으며,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코로나19로 금융불안이 고조되었던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인 2%대로 상승함
- 한편 3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발표, 증권사 손절성 매도 물량 증가, 보험사 초장기채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15일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됨
 -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3월 15일 1.22%, 2.15%에서 4월 초 1.14%, 2.02%로 하락함

16) 한국은행(2021. 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1. 1. 18), 「금리: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는 시기상조」,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2호

〈그림 18〉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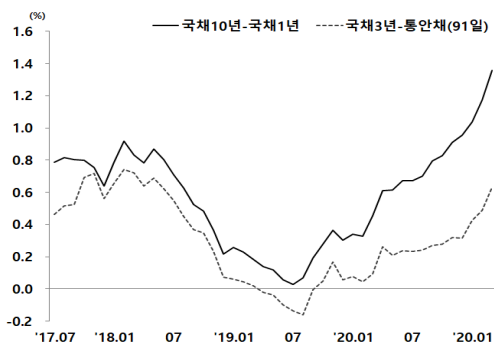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 신용스프레드는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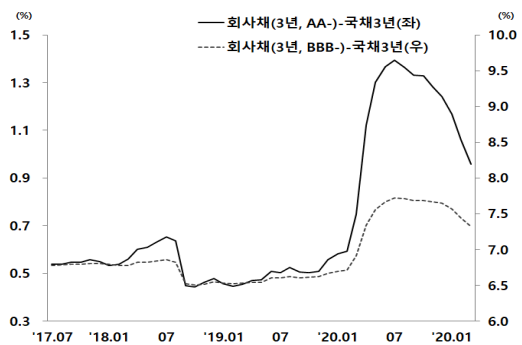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기준금리 동결과 단기국채 발행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1월 72bp에서 3월 103bp까지 확대됨
- 신용스프레드는 채안펀드 가동, 비우량 회사채 매입 SPV 설립 등으로 발행시장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축소됨¹⁸⁾
 - 일부 기업들은 발행시장 호조로 CP, 대출 등 만기도래 차입금을 공모사채로 차환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사회적책임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ESG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며 회사채 시장이 강세를 보임¹⁹⁾

〈그림 19〉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20〉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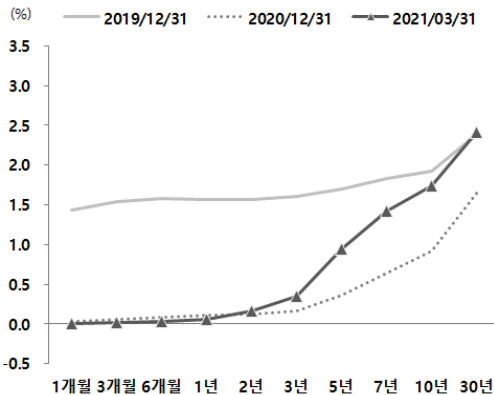
18)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1. 1. 18), 「금리: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는 시기상조」,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2호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1. 2. 1), 「금리: 추경 논의 대두로 금리 상승」,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3호

○ 미국 국고채 금리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와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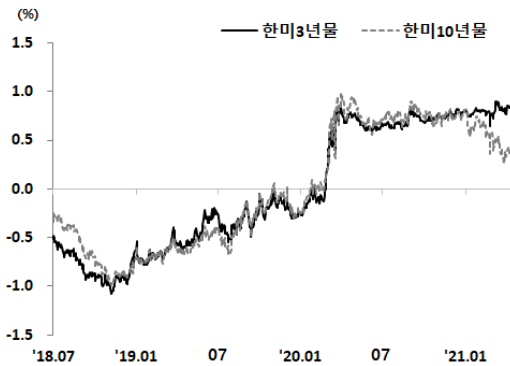
- 1월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바이든 정부의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발표와 일부 연준 인사의 조기 테이퍼링²⁰⁾ 언급으로 2020년 12월 0.90%에서 1.13%까지 상승함
- 2월에는 미국의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바이든 정부 부양책에 따른 경기 과열 우려 등으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1.50%선을 돌파하며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이후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금리상승에 대한 미국 연준의 적극적 조치 부재로 3월 말 미국 10년물, 3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1.74%, 0.35%로 상승함
 -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 경기부양법안 최종 승인(3.11), 2.25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안 발표(3.31)에 따른 경기활성화 기대가 금리 상승세를 견인함

〈그림 21〉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그림 22〉 한국과 미국 금리차(3년, 10년)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2/4분기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금리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함

- 2021년 2/4분기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71%로 지난 1월 전망치 1.06%에 비해 0.65%p 상향 조정함
-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3%로 지난 10월 전망치 1.74%에 비해 상향 조정하였으며, 3년물 금리는 1.07%로 0.01%p 하향 조정됨

20) 테이퍼링(Tapering)이란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차 축소해나가는 것을 말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3년) 금리		
'21. 2Q	3Q	4Q	'21. 2Q	3Q	4Q	'21. 2Q	3Q	4Q
1.71	1.80	1.86	2.03	2.12	2.14	1.07	1.12	1.18

주: 2021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4월 초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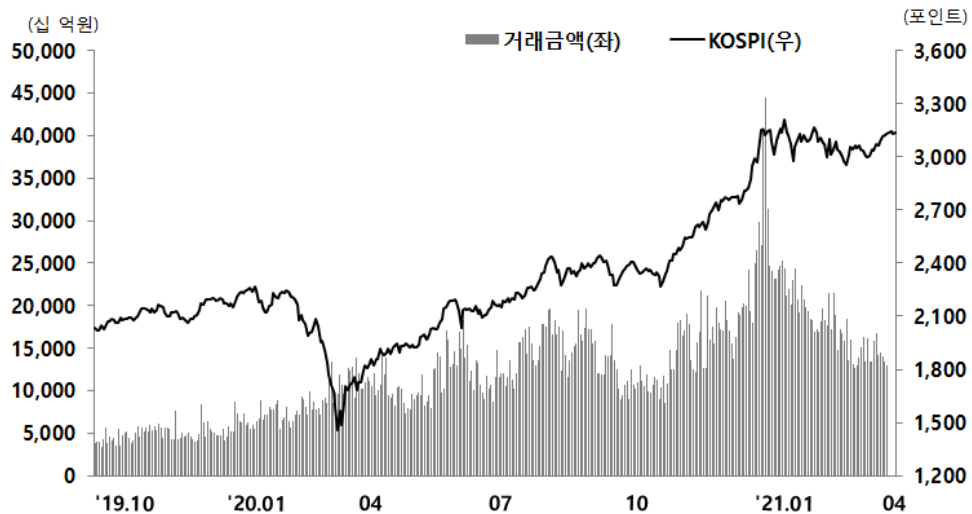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나. 주가

○ 코스피(KOSPI) 지수는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대 기대감,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감

- 2020년 말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상용화 확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큰 폭으로 반등하였으며, 1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감
- 1월 7일에는 1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3,000선을 돌파하였으며, 이후에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1월부터 3월 코스피 지수는 2,869~3,266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3월 말 3,100선에서 마감함

〈그림 23〉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다.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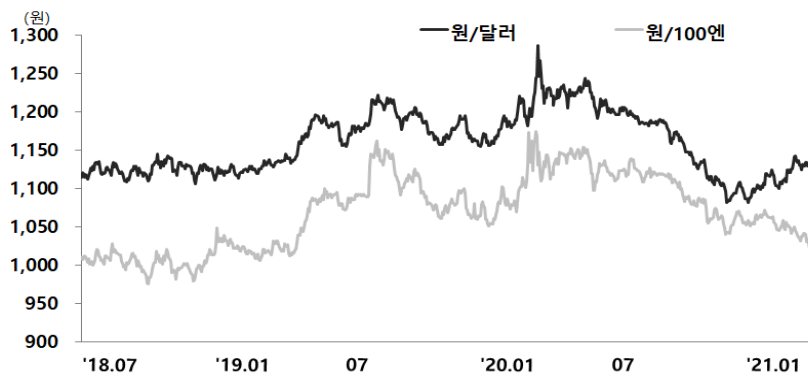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국내 달러화 수요 증가와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임

- 1월 원/달러 환율은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달러화 수요 증가로 12월 1,086원에서 1,120원까지 상승하며 전월 말 대비 30원 이상 상승함
 - 1월 개인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51억 달러로 2020년 총 규모인 197억 달러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²¹⁾
- 이후 미국 국채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20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1,140원대까지 상승함
 - 3월 말에는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매수, 대규모 선박 수주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제한되어 1,130원 선에서 등락을 나타냄²²⁾

○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일본 내 통화 정책 장기 금리 조절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임

- 100엔당 원/엔 환율은 1월 1,050원대에서 3월 1,020원대로 30원 이상 하락함
- 한편, 3월에는 일본은행(BOJ)이 10년물 국고채 금리의 변동 허용 범위를 $\pm 0.20\%$ 에서 $\pm 0.25\%$ 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50원대로 상승함
- 이후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기조는 유지되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유럽발 경제 재봉쇄 조치 우려,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등 위험선호 심리가 혼재하며 원/엔 환율 상승세를 제한함

〈그림 24〉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21) KDB 미래전략연구소(2021. 2. 1),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Weekly KDB Report』

22) KDB 미래전략연구소(2021. 4. 5), 「국제금융시장 3월 동향 및 4월 전망」, 『Weekly KDB Report』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2/4분기 원/달러, 달러/유로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하나 엔/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으로 미국 경기 회복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달러 강세를 보이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엔/달러 환율은 미국의 경기부양책,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안전 자산인 엔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보임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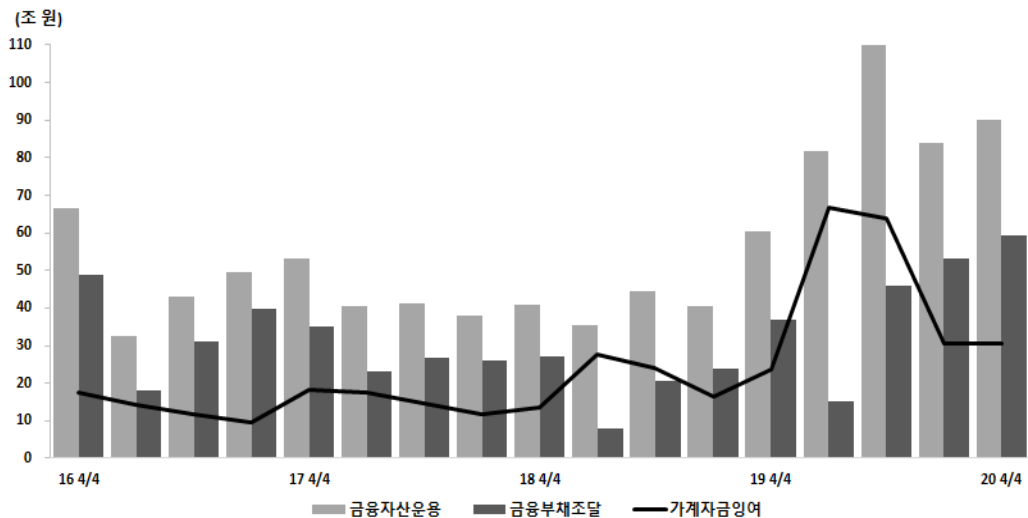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1. 1Q	'21. 2Q	'21. 1Q	'21. 2Q	'21. 1Q	'21. 2Q
Wells Fargo	1,132	1,130	111	110	1.17	1.16
Mizuho Bank		1,140		109		1.19
MUFG		1,070		104		1.24
JPMorgan Chase		1,110		107		1.18
BNP Paribas		1,145		111		1.18

주: 2021년 1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4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3. 자금흐름

- 2020년 4/4분기 가계부문²³⁾의 자금잉여²⁴⁾는 30.7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0.1조 원 증가함
 - 2020년 4/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전기 대비 6.1조 원 증가한 89.9조 원으로, 2/4분기의 역대 최대치(110.1조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020년 4/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부채조달은 59.2조 원으로 2009년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가계부문에서 30.7조 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함

〈그림 25〉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가계부문의 금융상품거래는 대폭 증가하여 2009년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함
 -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채권, 국내외 주식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투자펀드 거래는 감소함
 - 2020년 보험 및 연금 거래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보험 및 연금의 거래 비중은 대폭 늘어난 현금 및 예금과 국내외 주식 거래로 인하여 전년 대비 감소함

23)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24)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표 4〉 가계금융상품거래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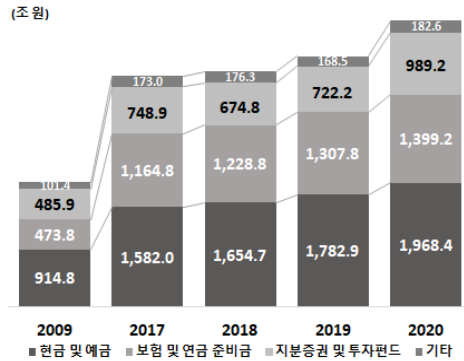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09	87.1	53.8	(37.2)	16.1	9.7	-2.2	-18.7	-1.2	144.6
2010	96.2	65.9	(44.8)	11.1	5.9	-0.2	-30.0	-1.7	147.2
2011	71.9	72.3	(45.7)	11.1	7.9	-0.3	-5.9	1.2	158.2
2012	37.8	99.0	(80.4)	10.5	-6.1	-0.4	-14.2	-3.4	123.2
2013	62.1	91.2	(60.5)	6.1	0.7	-0.3	-7.3	-1.8	150.7
2014	77.7	90.5	(53.2)	4.0	-0.8	0.8	-3.5	1.4	170.1
2015	109.9	89.8	(40.1)	4.7	5.3	1.7	9.5	2.8	223.7
2016	120.3	87.7	(40.8)	-0.4	9.6	0.1	-2.6	0.1	214.8
2017	105.4	83.3	(46.8)	-11.9	0.0	1.3	-3.6	3.6	178.1
2018	75.3	60.7	(37.8)	0.0	21.8	1.7	0.0	1.2	160.7
2019	130.7	72.0	(39.7)	-17.6	-7.9	2.1	2.0	0.1	181.4
2020	189.9	73.9	(20.2)	10.5	63.2	20.1	-6.6	14.6	365.6
1/4	66.0	10.9	(13.3)	-3.0	9.9	1.9	-6.7	2.8	81.8
2/4	54.2	16.6	(15.1)	8.4	17.3	4.0	4.0	5.6	110.1
3/4	30.4	12.1	(14.4)	9.7	23.3	8.3	-0.9	0.9	83.8
4/4	39.4	34.3	(38.2)	-4.5	12.6	5.9	-3.0	5.2	89.9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가계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8%로 2019년에 비해 2.0%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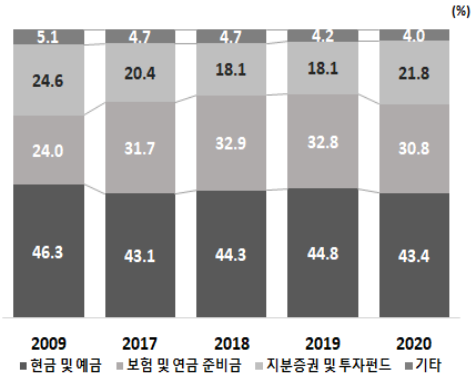
- 2020년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43.4%로 전년도보다 1.4%p 감소하였고,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21.8%로 전년도보다 3.7%p 증가함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자료: 한국은행

〈그림 27〉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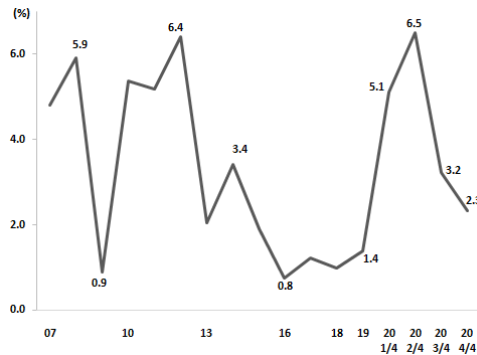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4/4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3%로 전분기 대비 0.9%p 하락하여 전분기에 이어 둔화세를 지속함

-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0년 3/4분기 12.8%를 기록하며 전분기에 비해 0.2%p 증가하였고 4년 연속 상승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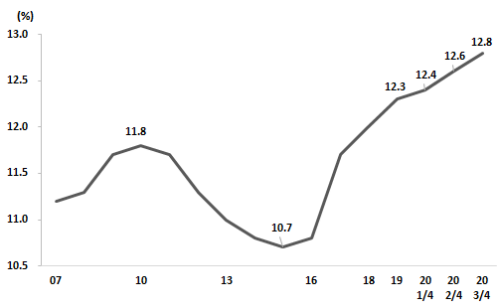
〈그림 28〉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 주: 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2) 2020년 증가율은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통계 개편(고시 제2020-111호)에 따라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로 변경, 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9〉 DSR



자료: BIS

4. 규제·제도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실시(4. 1~4. 21)(2021. 3. 31 금융위원회)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건전성 감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2020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2021년 6월 30일 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및 시행령(안)이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담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계획임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개편(2021. 3. 30 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답변을 제공하여 왔으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아 금융협회 차원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금융협회가 즉시 회신하고,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정비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의결(2021. 3. 24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되었음.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대형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자체 기준을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함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 12~4. 21)(2021. 3. 11 금융위원회)

-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
- 첫째, 미성년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고자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으로 확대하고, 둘째,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되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보호 차원 등에서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고, 셋째, 2023년 시행되는 IFRS17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를 정비하여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2021. 2. 23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해외 대체투자 자산 손실 우려에도 2020년 9월 현재까지는 이자·배당 수익을 실현함. 다만,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있는 바 엄정한 공정가치 평가, 자본 확충 등 선제적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을 보다 더 강화하고자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2021. 2. 9 금융위원회)

- 보험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노후 소득지원 및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활성화,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의 허가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심사 그리고 1사 1라이센스를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수요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 및 상품의 가치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추진,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그리고 부가보험(특약)에 대한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2021년 5월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으로 보험가입의 편리성 확대(2021. 2. 2 금융위원회)

-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보험가입이 쉽고 간편하도록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회사가 신속히 확인하여 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
-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로 특정 보험회사 단독으로 계약인수가 어려운 특수건물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인수함에 따라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을 강화함

○ 2021년 1월 4일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 가능(2021. 1. 4 금융감독원)

- 2019년 말 개인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 IRP 간 이전, 개인형 IRP-연금저축 간 이전의 간소화에 이어,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 간, DC 간, 기업형 IRP 간 이전도 이전 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 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함